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나훔-

##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훔 1장 1 - 15절)

고대 역사를 보면 니느웨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용사 니므롯에 의해 세워진 도시 국가 니느웨는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세속 도시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악한 도시의 대명사라면 니느웨는 인간끼리 싸우는 악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니느웨는 폭력적이었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이웃과 형제를 괴롭히는 국가였습니다.

니느웨는 B.C. 2200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을만큼 오래된 도시로 여러 세대에 걸쳐 거대한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괴롭혔습니다.

니느웨는 잠시 동안 역사상에 감추어져 있다가 B.C. 1900년경에 다시 나타나고 마침내 B.C. 800년경에 확실하게 역사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큰 도시로 역사 속에 부각되었습니다. 그 후 살만에셀 3세는 니느웨를 발판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B.C. 850 - B.C. 824)

이런 니느웨가 멸망한 것에 대해 역사가들은 먼저 그들의 내적 부패를 들었고 한편으로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니느웨가 멸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내적으로 부패하여 나라가 날로 쇠약해졌거나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끝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들에게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결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9-10).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훔입니다.

나훔은 위로 혹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전혀 그 뜻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의 입에서 불같이 토해냅니다.

500년 이상 동안 강력한 통치권으로 서아시아를 지배하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의 교만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아 이스라엘을 언제까지나 원수에게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 1. 심판의 이유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2절).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넘기시지 않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만큼 사랑하시어 마침내 대적하고 거슬리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보복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신 32:35).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위로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의 입을 봉하고 끝을 보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백성에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박해를 끝내시려고 마침내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7절).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가장 위로를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유대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일곱 번이나 반복합니다.

### 2. 심판의 방법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되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8절).

범람하는 물은 외국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앗시리아는 범람하는 물처럼 밀려오는 페르시아 군대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진멸 당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9절).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온전히 멸하여 이길 것이라는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단번에 끝내십니다(10절). 니느웨는 마른 지푸라기 같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물로 쓸어 버리고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이 처치하시어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역사의 암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14절).

이름이 다시 전파되지 않는다는 말은 후계자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단의 특징입니다. 지금 니느웨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니느웨는 500년의 역사를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후 니느웨의 세력은 역사 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15절).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악인이 멸망하여 다시는 유다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위로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의 입을 봉하고 끝을 보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3 열린바자 수익금 강남구청에 전달

## 9월8일 강남구청 간부회의 시간에



지난 주 2003년 이웃사랑 교회사랑 열린바자의 열매로 강남구청 산하 환경미화원 575명에게 방수 보은 파카 345벌과 스포츠화 230족(시가 69,000,000원 상당)과 160명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1인당 100,000원씩 총 16,000,000원을 추석 위로금으로 전달하기로 작정하고 지난호 순례자에 이를 공표하였다. 우리교회는 9월8일(월) 오전 강남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간부회의에 이종운 담임목사와 구계위원장 정병무 장로, 바자위원장 김광신 장로, 재정위원장 오정수 장로가 참석하여 강남구청에 위문품과 위로금을 전달하였

다. 이 날 이종운 목사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우리교회는 장애인 기관 두 곳과 대내구제도 시행하였다.

우리 교회의 목표 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와 민민에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성도들께도 감사드리며 더욱 큰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교회 정문 현관에 전광안내판 설치

우리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교회 정문 현관 상단에 전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일 예배와 주일 찬양예배, 수요일예배 안내와 그밖의 공지사항을 게재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설 때 예배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성도들이 더욱 은혜를 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바란다. 이 전광판은 11교구에 사시는 1집사의 헌금으로 바쳐진 것이다.

### 기관별 식당 봉사자

- 9.14(주) - 당회원
- 9.21(주) - 스테반회
- 9.28(주) - 권사회

##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2003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일제 개강

### -지난 주일부터 각 프로그램별 일정에 따라-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2003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서울 성경대학, 주부대학)이 각 프로그램별로 계획에 따라 일제히 개강하여 총 10주간의 학사 일정을 시작하였다.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추석 바로 전에 개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교역자들이 강의실로 사용되는 웨스트민스터홀을 가득 배운채 배움과 교회갱신 그리고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또한 성도와 이웃주민이 편히 교회로 와서 성경공부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열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성경대학과 주부대학 역시 많은 성도들의 호응 속에 개강하여 강의의 열을 많은 이들이 더욱 열의 있는

강의를 진행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살림 경로대학은 추석을 지내고 난 후인 9월 19일(목)에 개강한다.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위원회(학감 민순구 장로)는 추석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신 성도들의 땀방울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더욱 많은 성도들의 봉사 참여로 계속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열린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으나 아직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은 계속하여 사무국에서 절수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성공적인 다락방예배를 위하여-

## 다락방 모임의 축복



이종석 목사(교구위원회)

다락방 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락방 모임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다락방을 통하여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 조직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서울교회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35) 예수님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관계

성을 맺고 있는 다락방 가족들입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줄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압니다.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줍니다.

신앙은 홀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락방은 더불어 함께 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락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약에서 '서로'라는 말이 50번이상 등장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헌신하고 등등, 이를 통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셋째,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 줍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의 집중 공격 대상은 무리에서 이탈된 어린것이나 허약한 동물들입니다. 대열에서 이탈되면 힘이 없습니다.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단은 다락방에서 떨어진 사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점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락방 안에서 함께 지체로 있을 때 이 세력으로부터 서로 세워주고 붙잡아 줄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락방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갈2:22). 모인 무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의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나눔과 교제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까?

다락방 모임에 참여 하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 우리들의 어머니 은빛 찬양대!

“내 주님의 소리 들리네,  
하늘 가득 영광~~~ 하늘 영광 들리네”

하늘 향해 높이 들려진 손은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라는 애절한 절규였다. 젊은이 못지않게 신앙에 도전과 열정으로 이 시간까지 찬양과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지키시며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들의 어머니 은빛 찬양대!

주일마다 네번 연습하시어 쉿째 수요일 예배에 서시기 위해 한달 내 설렘속에 기다리시다가 이날만큼은 더 끝까지 단장하시고 정성으로 가사도 다 암기 하시며 부르시는 그 찬양 소리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서 흠뻑하시는 최고 최선의 예배이다.

분홍색의 자주 깃을 단 고운 까운은 너는 내 것이라 보혈로 인 쳐주신 메시지가 느껴져 더욱 아름다우며 그 까운

을 입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다. 회중 모두는 그때부터가 찬양의 시작이며 예배의 시간 같은 엄숙하고도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들의 어머니 은빛 찬양대!

은빛 머리에 주름진 이마, 굵은 허리는 가정과 은 교회와 민족을 견고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일구고 남겨진 진주 같은 눈물과 땀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온몸이 다 연약하지만 결손과 사랑으로 피를 두르고 찬양하시는 당당한 모습은 진정한 하늘나라가 임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눈물겨운 하늘의 울림이었다.

그 영혼의 고백이 이땅을 고치며 가정과 교회를 이 민족을 살리는 부흥의 불꽃이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이민족을 향도 하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선구자적인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닌가!

결사같은 후회하나 속사같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어머니! 이제는 명실공히 서울교회 찬양대로 자리매김한 은빛찬양대이다.

지휘자 강민희선생님께서도 늘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또 신앙의 선배님을 우러러 보는 심정으로 연습 때마다 지휘자가 은혜 받는 감동의 연속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이 은빛찬양대 지휘한지 꼭 일년하고도 한달이 되는 날이라면서 그 동안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권사님들은 서울교회의 빛나는 보석들이었으며 앞으로 서울교회의 큰 비전을 나타낼 한 알의 밀알, 참으로 우리들의 어머니였다고 회고하였다.

앞으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우리 어머니들 위에 건강으로, 더욱 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늘보좌를 움직이시는 은빛찬양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동기(편집부)

## 역경을 넘어서



다음은 K일보에 17회연재로 실린 백효죽 장로(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의 간증일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해방이 되고 이북에 공산당들이 판을 치자 아버지는 월남을 결정하셨고 서울로 온 뒤 어떤 동네에 와서 천막 속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난다. 기억하기도 싫은 6.25 전쟁이 발발하고 7월 어느 날 폭탄이 떨어져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폭탄 파편이 종아리를 관통하여 사경을 헤매는 처지가 되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린 때이기도 하다. '나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하면 주님을 위해 일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살려주셨고, 나는 이 공계로 가려고 했던 진로를 바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회음악을 공부하기로 했다.

1967년 아내 이영자 권사와 결혼을 하고 1973년 우리 집안의 장손인 명훈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명훈이는 난산으로 인해 뇌성마비가 되었고, 태어난지 3일만에 장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 날로부터 명훈이를 향한 나의 가슴저런 사랑은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며 주님의 더욱 귀한 일꾼이 되려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유학은 우리 부부가 아깝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고통을 주

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지며 나의 연약한 믿음은 흔들리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니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와 같은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역하게 하셨다. 나는 청소년음악 입상을 제기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LA 필과 오랫동안 협연하는 가운데 마침내 1996년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합창협회 이사로 추대되었다. 이 일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유학길에 오른지 33년만에 나는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의 교회음악 교수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또 귀국에 맞춰 연세대 음악대학 강사로 청빙돼 지휘 전공자들을 지도하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합창단의 단장겸 지휘자로도 임명받게 되었다. 아들 명훈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 감사할 뿐이다. 내가 겪은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다. 그 시련을 통해 내 인생은 훨씬 넓고 깊어졌다. 나는 지금도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결코 실망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불쌍한 자를 위로하시며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합니다." 정리 : 허숙(편집부)

백 장로의 간증은 9월15일 오전10시30분, 오후 6시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된다.

### 제 88회 총회 열린다 -9월 22일(월) ~ 26일(금)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88회 총회가 인천 주안교회당에서 '성령이여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갖고 열린다.

9월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기구 개혁안과 주기도문, 시도신장 재변역안 등 실질적인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교회에서는 이종을 목사님과 오경수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한다.

### 성경대학 등록 권장키로 -1인 1과목 수강 토록-

교회는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성경대학에 각종 과목을 개설하고 등록을 받고 있다.

한 사람이 한 과목 수강 원칙을 갖고 누구나 성경대학 학생이 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밭의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빈약한 자 구제 · 만민에게 전도의 사명

## - 금요구제 -

지난 8월26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삼삼오오 교회로 모여드는 노인들이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 모여 앉았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60을 훨씬 넘긴 초라한 몸골의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다. 모인 분들의 인원은 172명으로 처음에는 20여명이 모이다 80여명으로 다시 올 여움을 넘기며 이 숫자에 까지 이른 것이다.

이분들은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 지원도 받지 힘든 분들로 얼마 전 매스컴에서 보도한 서울 일부 외곽 지역의 다 쓰러져 가는 움막과 같은 집이나 몸을 편히 눕고 잠을 자기도 불편한 쪽방에서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외로이 살고 있는 노인들이다. 이 분들 중 한 분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교회와 성당 등지에서 천원씩 오백원씩 삼백원씩 구제받아 모은 돈 15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교회에서 이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기 시작한 것은 대치동 새예배당에 입당을 하고 난 후 교회 십자가를 보고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이들에게 단숨에 얼마간의



구제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잠깐이나마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구제금을 전하는 것이 더욱 의미있다고 판단하여 매주 금요일 오전 8시30분에 구제하는 것을 정례화한 것이다.

이날 구제에 앞서 이규정 목사는 성경을 잠시 읽고 난 후 이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기고 살아가시라고 당부하였다. 이들이 설교의 끝에 함께 아멘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는 정말 옆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심금을 뜨겁게 하였다. 간략한 예배 후 일렬로 나와 직원이 나눠주는 천원짜리 신권을 받을 때 깊이 허리

를 굽히며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며 인사를 하고 멀리 급하게 사라져갔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하는 구제에 가는 길이라.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교회의 작은 사랑의 손길이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유대서 (편집부)

### 이단 바로 알기- 안상홍 증인회

##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요?

### 오정식 목사(3, 4교구 담임)

얼마 전 고등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문: "목사님, 우리 집에 방금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요 성력 1월 14일 해질 때가 유월절이러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더군요."

또 부활절에 유월절을 겸해서 지키면 안된다면서 한 시간 동안 이상한 얘기만 늘어놓았어요 또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력 1월 14일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키는 않는 교회는 불법을 행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이들은 이단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 목사님께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답: 그 사람들은 "안상홍 증인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원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식교(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럼 왜 이단인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은 스스로를 재림주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를 이은 장길자는 하나님의 신부, 어머니,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안상홍증인회"는 교주를 신격화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잘못된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한편 그 뿌리가 되는 안식교의 교리를 떨쳐 버리지 못하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이단대처법"입니다.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 전국 수화찬양대회

-10월 3일 우리 교회당에서-

농아인 선교 자원 봉사자들의 수화 찬양대회가 한국 농아인 선교회 주관으로 10월 3일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우리교회 예배다부 교사들도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맹렬한 훈련에 들어가 있다.

### 쓰레기를 분리수거 합시다

매주일 교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분리가 되지 않아 청소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인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쓰레기를 분리한다면 더욱 쾌적한 교회와 은혜로운 예배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

### 동정

■ 금주의 식사: 최호영 성도 · 천정화 집사가장 (범사에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금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시작하는 다락방 모임을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도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